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Korea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Variables.

이 숙 ** 박 성 연 ***
LEE Sook, PARK Seong 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veral types of Korea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and the related variables. The study included the development of a "Children's Report of Korean Parent's Behavior Inventory"(CKPBI). Subjects were 1722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5 urban cities in Korea. CKPBI and a Home Environment Questionnaire were used to gather data for the stud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 CKPBI which consists of 46 items for father's and 48 items for mother's was found as both a valid and reliable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child rearing attitudes of Korean parents. A factor analysis resulted in identifying two factors both for mothers and fathers; they were the "Warmth factor" and "Rejection-Authority factor". Eight types of child rearing attitudes were found for Korean parents. The SES of family significantly predicted Korea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The SES of the family, and sex of the child determined variations in Korea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Maternal religion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both boys' and girls' perceptions of parental attitud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high inconsistency within each parent and high consistency between both parents.

* 본 논문은 1987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I. 서 론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제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의 보고(Becker, 1964; Schaefer, 1965; Rohner, 1980; Saavedra, 1980) 등에 따라 많은 학자, 교육자, 일반 부모의 관심이 오랫동안 이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에는, 아동이 주변의 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어서, 부모 자신의 보고 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논의되고 있다(Schaefer, 1965; Kagan, 1971).

또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족의 구성이 핵가족화, 소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가족 구성원 하나 하나의 비중이 그만큼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Radin, 197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어느 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철저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부와 모의 양육

태도를 결합하여 측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인간의 태도는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몇 개의 차원에서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보다는, 각 차원에서의 특성들을 결합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Schaefer, 1959; Becker, 1964).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는 그 가족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한 검사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고도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 문헌들(이원녕, 1983; 안말애·조복희, 1985)을 고찰해본 결과, 대부분의 양육태도 연구는 외국의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했거나, 다소 수정·보완해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몇몇 부모양육태도 검사도구가 대부분 오래되었거나, 주로 어머니용이고, 부와 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시도한 연구가 없었던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본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떤 요인들로 구성될 것인가?
- 2)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3)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성별, SES, 가족구성, 종교, 어머니의 직업유무, 부모의 연령, 형제수)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A. 양육태도의 차원

양육태도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이차원적인 구조를 제안했다. (Baldwin, 1955) 이러한 초창기 연구의 전통을 이어받아 Schaefer (1959, 1961)는 「PARI」(The Parental Attitude Research Instrument)를 개발하였고, Zuckerman, Beatrice, Monashikin 그리고 Norton (1958) 등은 표준화 자료를 사용하여 PARI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Zuckerman 등 (1958)은 요인 분석을 통하여 권위주의적 통제, 적대·거부, 민주적 태도의 3요인을 제시하였다.

Schaefer (1959)는 PARI를 통해 어머니의 행동이 조직될 수 있는 두 개의 양극적인 차원, 즉 자율-통제 대 애정-거부를 제안하는 가설적인 원형 모형 (Circumplex model)을 제시하였다. 부모 행동의 이 두 차원은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요인 분석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Schaefer, 1959; Schludermann & Schludermann, 1970, 1979). 애정-거부 차원에서, 부모의 거부는 적대심과 공격성, 무관심과 무시라는 두개의 중요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Rohner, 1980). 애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고 아동 중심적이며, 자

주 설명을 해주고, 훈육 방법으로는 처벌대신 상을 사용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자율-통제 차원은 엄격함과 허용성이라는 양극적인 차원을 형성한다. 엄격한 태도는 여러가지 규정과 금지를 제기하고 강요하는 태도이고, 허용적인 태도는 거의 규칙을 제시하지 않으며, 자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끔 허락하는 태도를 보여 자녀는 거의 부모가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고 지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율-통제 차원은 애정-거부 차원보다 구체적인 부모 행동에 더 많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문제가 적다고 할 수 있다 (Kagan, 1971).

Becker (1964)는 「PARI」를 사용하여 적대심-온정, 제한-허용, 과보호-방임의 3요인을 추출하였고, 여기에서 다시 (1) 민주적, (2) 관용적, (3) 신경과민적, (4) 무관심 (5) 권위주의, (6) 엄격한 통제, (7) 과보호, (8) 조직적 효율성의 8가지 양육태도 유형을 제시하였다. Pumroy (1966)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1) 거부적, (2) 과보호적, (3) 과허용적, (4) 규율적 태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Baumrind (1971)는 통제, 성숙에의 요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명확성 및 부모의 양육성 (nurturance)의 4차원에 기초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1) 권위적 (authoritarian) 통제, (2) 엄격한 (authoritative) 태도 (3) 허용적 (Permissive) 태도의 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중심으로 보면, 오기선 (1965)의 연구가 비교적 초기에 발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Symonds (1949)의 이론에 입각하여 부모의 양육태

도를 (1) 거부, (2) 지배, (3) 보호, (4) 복종, (5) 모순 불일치의 5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김재은(1974)은 Fels 연구소의 「PBR」을 모체로 하여 부부관계 한 영역을 보완하여 만든 「가정환경 진단검사」를 사용하여 한국 가족의 성격에서 (1) 화목-불화, (2) 허용-엄격, (3) 친애-소원의 3 차원을 추출하였다. 정원식(1974)은 (1) 성취-비성취, (2) 개방-폐쇄, (3) 친애-거부, (4) 자율-타율의 4 차원을 제시하였다. 이원녕(1983)은 Schaefer(1959)의 「MBR I」를 번안·수정한 검사도구를 유아의 어머니들에게 실시한 결과에 대해 요인분석을 하여 (1) 애정, (2) 거부, (3) 어머니의 외향적 특성, (4) 의존성 조장, (5) 통제, (6) 긍정적 평가, (7) 독립심의 7 요인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애정적, 수용적 태도는 아동의 안정성, 사회성 등의 성격특성(Becker, 1964; 홍상욱, 1985), 자아 존중감 및 자기 만족(Saavedra, 1980), 인지적 능력 및 인지양식(Radin, 1973, Campbell, 1973; 조진형, 1983), 성역할 발달(Sears, 1965) 등에 긍정적 상관을 갖는 반면에, 거부적·제한적·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부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말애·조복희, 1985).

국내·외 연구들에서 보고된 부모 양육태도의 차원 및 유형에 관한 자료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B. 관련 선행 연구의 고찰

1) 아동 및 부모의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
Droppleman과 Schaefer(1963)는

남아와 여아가 부와 모에 의해 다르게 취급 받고 있으며, 이것이 성격 발달에 있어서 양성간 차이를 가져온다고 제시했다. Rothbarth와 Maccoby(1966)는 어린이의 음성을 이용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는 의존성과 공격성에 있어서 여아에게 허용적인 반면에 어머니는 남아에게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Baumrind(1971)는 3, 4세 아동의 부모에 대한 연구에서, 아버지는 딸보다 아들에게 더 엄격한 경향이 있었고, 어머니에게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Margolin과 Patterson(1975)은 아버지가 딸보다 아들에게 거의 2배이상 많은 보상을 한 반면에, 어머니는 자녀의 성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다고 보고함으로써 자녀와 부모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제시했다. Noller(1980)는 아들과 딸을 각각 한 명씩 가진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버지는 딸에게 어머니는 아들에게 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Cox(1970)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소녀가 소년보다 아버지를 더 애정적, 덜 거부적이라고 지각했으며, 소녀의 아버지가 소년의 아버지보다 스스로를 더 애정적이라고 지각했다고 보고했다.

Armentrout와 Burger(1972)는 9~13세의 하류층 아동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11~13세 소녀는 소년보다 부모가 수용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소년은 소녀보다 심리적인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제의 엄격함에서는 성차가 없었다고 하였다. Rohner와 Patt-

engill(1985)은 서울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소녀가 소년보다 아버지를 덜 자율적이라고 지각했으며, 부와 모의 통제를 온정과 낮은 무관심에 연관시켰다고 보고했다. 단, 엄격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약간 더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엄부자모”의 관념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했다.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한중혜(1980)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민주·자율적 태도를 나타낸 반면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애정적·수용적 태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오성심·이종승(1982)은 도시와 농촌의 중학교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여아는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녀 모두 어머니는 애정적, 아버지는 성취지향적, 합리적, 자율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현순(1983)은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더 엄한 체벌과 엄격한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아버지는 딸에게 더 엄격한 태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이수연(1985)은 국민학교 5, 6학년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녀 모두 아버지를 자율지향적·합리지향적이라고 지각하는 반면에 어머니를 애정지향적·성취지향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Rowe(1981)는 친부모와 거주하는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에 대한 흥미있는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

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따른 양육태도

Rosen(1964)은 중류층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류층보다 더 수용적, 평등주의적이라고 보고했다. Zuckerman 등(1958)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권위적으로 통제하는 태도는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적대적-거부적 태도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Schaefer와 Bayley(1960) 등은 중류층 부모들이 자녀의 요구와 충동에 더 관대한 반면에, 하류층의 어머니는 중류층의 어머니보다 더 제한적이고 덜 협동적-애정적이었다고 보고했다. Waters와 Crandall(1964)은 1940~1960년 사이의 자녀 양육태도와 가정의 SES간의 관계를 평가하면서, 가정의 SES는 어머니의 강제적인 행동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즉, 가정의 SES가 낮을수록 어머니는 강제적인 제한, 제한적인 규제 등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Rosen(1964)은 중류층 및 하류층의 9~11세 남아에 대한 연구에서, 중류층 소년은 하류층 소년보다 부모들이 더 유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수용적이며, 자녀의 수행에 관심을 갖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되었다. Hoffman(1960)은 12세의 중류층 및 하류층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SES에 따른 성차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중류층 및 하류층에

서 소녀는 소년보다 부모를 애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중류층 소녀가 소년보다 부모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지각하는 경향이 낮게 나타난 반면에, 하류층 소녀는 소년보다 아버지의 귀납적인 훈육 방식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ordan, Radin 그리고 Epstein(1975)은 중류층, 노동층, 하류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중류층의 소년이 하류층의 소년보다 아버지를 양육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소녀에 있어서는 SES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enggler 와 Tavormina(1980)는 인구통계학적, 심리 측정적인 변인들 중에서 SES와 상관이 있는 변인 몇 개를 통제 한 결과, SES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들에서는 SES에 따른 차이를 대체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우(1973)는 부모의 직업이 지적인 활동에 관계될수록, 감각 우위적인 방법보다는 사고 중개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원녕(1983)은 아버지의 직업 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유아를 가진 어머니는 애정적 태도를 나타냈지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 태도를 더 높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어머니의 거부적인 태도는 아버지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종혜(1980), 윤현선(1984), 이은수(1985)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일치되고 있다. 한편, 전경숙(1980)

은 국민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간의 양육태도의 부정적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심영현(1981)은 중학교 남·녀 학생 모두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를 더 권위적으로 지각하는 반면에, 부모의 제한적 태도에 대한 지각에서는 교육수준, 수입 정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3) 부모의 연령, 종교, 자녀의 수,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

Stuckey, McGhee, 그리고 Bell(1982)은 학령전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해 질문지, 가정 관찰, 놀기 과업관찰, 관찰자 평가 등을 통해 얻은 결과에서, 비취업모 가정에서는 아들에게, 취업모 가정에서는 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보고함으로써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Hoffman(1974)은 어머니의 취업의 영향을 분석한 문헌조사에서, 어머니의 직업 유무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 여부가 더 큰 변인이라고 보고했다. 전경숙(1980)은 어머니의 직업 유무가 부·모간의 양육태도의 일치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한 반면, 이은수(1985)는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애정적 태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Ragozin, Basham, Cirnic, Greenberg, 그리고 Robinson(1982)은 출산후 1개월이 되었을때 조산아와 정상아의 어머니의 지각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 역할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그 역할의 수행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

으며, 자녀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했다. 단, 어머니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10대), 너무 많은 경우(30대 후반)에는 부모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되었다. 이원녕(1983)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거부적 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심영현(1981)의 연구에서도 일치된 경향이 보고되었다.

Sarafino 와 Armstrong (1980)은 문헌 연구를 통해,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와 자녀가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할 기회는 줄어들고, 따라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지적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시사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애정·수용적이라고 보고한 결과(한종혜, 1980), 정반대의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한 결과(이은수, 1985)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한 결과(윤현선, 1984) 등이 나타나서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김재은(1974)은 한국 부모의 훈육태도에서 지역차와 종교차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도시 가정의 훈육방법의 합리적·비판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지방 가정은 전체적인 경향이 있었으며, 종교의 유무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희자와 정영숙(1979)은 아버지가 기독교와 천주교일 때, 무종교인 경우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마송희(1979)는 도시와 농촌의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의 비교 연구에서, 도시 아동이 농촌 아동보다 더 부

모 지향적이며, 부모를 더 애정적, 자율적으로 지각하고 신체적 훈육을 적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지역·출생 순위 등에 따라 아무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의 5개 대도시에서 총 15개 국민학교의 5, 6학년 남·녀 아동 총 17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의 표집 방법을 보면, 각 도시에서 3개 국민학교를 임의로 선정하고 해당 국민학교에서 5학년과 6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아동 전체 1849명을 대상으로 「한국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도구」 및 「가정환경 조사서」가 포함된 검사지를 배부한 후, 첫째, 결손 가정이거나 부모와 실제로 별거중인 경우 둘째, 부나 모에 대한 70문항중 무응답이 각각 3개 이상 있는 경우 셋째, 극단적인 반응틀(response set)을 나타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나머지 1722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단, 무응답이 3개 미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하위 변인(Subscale)의 평균 점수를 각 아동에 대해 계산하여 넣어 주었다. 연구 대상자의 도시별·학년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 표 1 >

연구대상자의 도시별·학년별 분포

단위 : 명 (%)

도시 학년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계
	N (%)	N (%)	N (%)	N (%)	N (%)	N (%)
5 학 년	113(32.0)	116(31.9)	130(51.8)	185(48.9)	139(37.0)	683(39.7)
6 학 년	240(68.0)	248(68.1)	121(48.2)	193(51.1)	237(63.0)	1039(60.3)
계	353(100.0)	364(100.0)	251(100.0)	378(100.0)	376(100.0)	1722(100.0)

< 표 2 >에서 보듯이 남아와 여아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같은 연령을 대상으로 한 경제 기획원(1986) 조사자료와 비슷한 분포라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아동은 35.6%로 나타났고, 이들중 대부분이 자영상공인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류가 44.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중상류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연령은 41~45세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어머니의 연령은 35~40세가 대부분이었다. 형제 수는 3명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별 분포는 부모 모두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면관계상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간략히 설명하였으나, 종합적으로 보아,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조사연구(한국 갤럽조사연구소, 1980, 1983)의 결과보다 교육수준, 직업 등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 대도시 가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어느정도 반영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별 무리없는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 표 2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1722) 단위 : 명 (%)

교 육 수 준	부		모		종 교	부		모	
	N	%	N	%		N	%	N	%
무 학	9	0.5	36	2.1	기 독 교	292	17.0	388	22.5
국민학교 중퇴 및 졸업	197	11.4	331	19.2	천 주 교	133	7.7	226	13.1
중학교 중퇴 및 졸업	397	23.1	556	32.3	불 교	615	35.7	747	43.4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680	39.5	611	35.5	기타종교	18	1.0	20	1.2
대학교 중퇴 및 졸업	332	19.3	145	8.4	없 음	631	36.6	318	18.5
대학원 졸업 이상	107	6.2	43	2.5	무 응 답	33	1.9	23	1.3

직	업	부		모	
		N	%	N	%
행상, 가정부, 청소부, 막노동, 무직, 조리사, 이발사, 미용사 등		192	11.1	174	10.1
광부, 목공, 재봉사, 용접공, 자동차 운전사, 경리원, 우체국직원		368	21.4	53	3.1
자영상공인 (기계수리점, 음식점, 가게, 미장원), 점원, 판매원		478	27.8	279	16.2
계장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회사원, 전기사, 기계기사, 교사 등		403	23.4	72	4.2
한의사, 수의사, 연예인, 체육인,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회사원		205	11.9	29	1.7
전문직 (의사, 대학교수, 판·검사, 과학자), 큰 회사의 사장		76	4.4	5	0.3
가정주부		—	—	1110	64.4

연령	부		모		형제의수	N	%
	N	%	N	%			
35세미만	27	1.6	190	11.0	1명 (독자)	40	2.3
35 - 40	379	22.0	916	53.2	2명	553	32.1
41 - 45	866	50.3	457	26.5	3명	647	37.6
46세이상	432	25.1	140	8.1	4명이상	473	27.5
무응답	18	1.0	19	1.1	무응답	9	5

가정의 SES	N	%	성별	가족구조	
				N	%
하 류	146	8.5	남	881	51.2
중 하 류	773	44.9	여	841	48.8
중 상 류	682	39.6	대 가족	330	19.2
상 류	121	7.0	핵 가족	1196	69.5
			기 · 타	196	11.3

* SES는 부·모의 교육수준 및 아버지의 직업을 각각 점수화하여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4집단으로 분류함.

B. 검사 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도구

1) 1차적 문항선택

Schaefer (1965) 는 「CRPBI」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를 제작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26개의 개념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Schaefer (1965)의 검사 도구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양육태도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Schaefer의 기본 가정을 기초로 하되, 26하위 변인들에서 각각 2개씩의 문항을 추출한 52개의 문항에다가 국내·외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문항들 중에서 우리 사회에 보다 적절하다고 평가되는 문항들을 포함한 총 86개의 문항들을 1차적으로 선택하여 검사도구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검사문항의 작성에 참고한 연구들은 Schaefer(1965), Becker (1964), Schludermann & Schludermann (1979), 김재은(1977), 오성심·이종승(1982) 등이었다.

86개의 검사 문항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부와 모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로 구성하려고 하였고, 각 문항의 순서는 무작위로 배열하였다.

검사도구에 대한 반응은 Likert 형 4점 척도에서 선택하도록 했는데, 모든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4점), “그런편이다”(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등으로 배열하였다. 따라서 각 하위변인에서의 총점은 해당 문항수에 따라 2문항일 때는 2~8 점,

3문항일 때는 3~12점, 4문항일 때는 4~16점 사이에 분포되었다.

2) 2차적 문항 선택

2차적인 문항 선택을 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6학년 아동 119명에게 86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결과 106명에 관한 자료만이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문항선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개별 문항과 하위 변인간의 상관관계 (Item-Subscale Correlation)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할 것, 둘째, 반응율이 극단에 치우치지 않을것 (75%이상이거나 25%이하인 경우는 제외)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때, 첫째 기준에서는 16문항이 탈락되었고, 둘째 기준에서는 1문항이 탈락되었는데, 이 경우는 첫째 기준에서도 해당이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16문항이 탈락되어 총 70문항이 2차적 문항 선택과정에서 남게 되었다. 또한 문장이 다소 어렵거나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된 내용은 쉬운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3) 최종적인 양육태도 검사도구의 구성

1, 2차 문항선택 과정을 거쳐, 26개 하위변인들로 구성된 70개 문항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을 요인분석하므로써,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추출해냄과 동시에 최종적인 문항 선택을 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 검사에서는 46문항이 선택되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에서는 48문항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표 6, 표 7 참조>

2. 가정환경 조사서

되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들간의 Pearson 적률 상관관계를 검토한 후, 중다회귀 분석 (multiple regression) 을 적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및 제 변인간의 상관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차 분석 (Crosstabulation) 을 하고 X^2 및 Cramer's V를 적용하여 관련 정도를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A. 부모 양육태도의 구성 요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

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요인 분석방법 (Principal factor analysis with iterations) 을 사용하였는데, 고유치 (eigen value) 2.0^{주)} 을 기준으로 각각 두 요인을 추출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해 보면, 요인 I의 고유치는 6.80 이었고, 요인 II의 고유치는 2.84로서 두 요인은 전체 변량의 86.6 %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에 대해 다시 직각 회전방식 (Varimax rotation method)으로 축회전을 시킨 결과, 높은 요인 부하량 (factor loading ; .40이상) 을 나타내는 하위 변인들이 각 요인에 대해 선택되었다. 각 하위 변인들의 공유치는 .13 ~ .67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 >

주) 요인 분석결과,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 중에서 두 요인의 고유치만 2.0 이상이었고, 나머지 요인들은 0.7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 > 아버지 양육태도 검사의 요인 행렬표 (2 요인)

하 위 변 인	회 전 전			회 전 후	
	온 정 요 인	거 부·권 위 주 의 요 인	공 유 치	온 정 요 인	거 부·권 위 주 의 요 인
1	.36	-.05	.30	.39	-.02
2	-.01	-.16	.13	.11	.12
3	.11	-.15	.21	.05	-.03
4	.52*	-.04	.33	.40	-.25
5	.57*	.06	.38	.56*	-.15
6	.74*	.06	.59	.71*	-.26
7	.75*	.03	.60	.68*	-.28
8	.71*	.08	.51	.59*	-.31
9	.72*	.10	.53	.58*	-.36
10	.75*	.08	.58	.68*	-.29
11	.75*	.14	.60	.71*	-.27
12	.54*	.16	.40	.61*	-.09
13	.36	.38	.35	.50*	.07
14	.57*	.30	.42	.54*	-.17
15	-.29	.50*	.34	-.06	.45*
16	.17	.32	.18	.11	-.04
17	.35	.53*	.42	.39	.04
18	.07	.59*	.43	.07	.13
19	.16	.50*	.29	.19	.13
20	.36	.36	.28	.32	-.05
21	-.09	.61*	.40	.04	.33
22	-.52*	.46*	.54	-.16	.70*
23	-.44*	.54*	.51	-.20	.60*
24	-.61*	.35	.61	-.24	.74*
25	-.59*	.24	.51	-.28	.66*
26	-.70*	.27	.67	-.35	.74*
공 유 치	6.80	2.84			
설 명 변 량 (%)	61.11	25.5			

* 요인 부하량 (factor loading) > .40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해서 보면, 요인 A의 고유치는 6.65 이었고, 요인 B의 고유치는 2.86 이로서 두 요인은 전체 설명 변량의 8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에 대해 직각 회전방식으로 축회전을 시킨 결과, 높은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는 하위 변인들이 각 요인에 대해 선택되었다. 각 하위 변인들의 공유치는 .15~.67 사이에 분포되었다.<표 5>

이러한 요인 분석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역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두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설명 변량의 58.6%를 차지하고 있는 요인 A는 “온정 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이것은 아버지의 요인 I (“온정 요인”)과 거의 비슷하지만 사회적 활동을 고무하는 태도가 더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B는 25.2%의 설명 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부·권위주의 요인”으로 명명되었고, 아버지의 요인 II와 같은 하위 변인들로 구성된 태도로 나타났다.

“온정 요인”은 (1)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2) 시간·활동 등을 함께 하는 것, (3) 애정의 표현, (4) 자립적 사고의 고무, (5) 정서적인 지지, (6) 평등주의적 대우, (7) 지적 자극, (8) 아동 중심적 태도, (9) 소유적 태도, (10) 보호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온정 요인”의 점수는 10개 하위 변인들의 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산출하였다.<표 6 참조>

어머니의 “온정 요인”의 점수는 위의 10개 하위변인에다가 “사회적 활동의 고무”라는 하위변인 하나가 더 첨가된 11개 하위 변인들의 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산출하

었다.<표 7 참조>

부모의 온정적 태도는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아동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고 과보호하려는 태도로서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온정 요인”은 선행 연구들(Schaefer, 1965; Becker, 1964)이 제시한 “애정 요인”, “수용 요인”과 비교될 수 있는데, “온정 요인”은 소유 및 보호하려는 태도가 “애정 요인”, “수용 요인”보다 더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거부·권위주의 요인”은 (1) 간섭, (2) 부정적인 평가, (3) 신경이 예민해서 화를 잘내는 태도 (홍분성), (4) 거부적인 태도, (5) 무관심, (6) 자녀를 무시하는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거부·권위주의 요인”의 점수는 6개 하위 변인들의 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산출하였다.<표 6, 7 참조>

부모의 거부적·권위주의적 태도는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무관심하면서도, 자녀의 행동을 간섭하려는 태도로서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거부·권위주의 요인”은 선행 연구들(Schaefer, 1965; Rohner, 1980)이 제시한 “적대 요인” 또는 “거부 요인”과 비교될 수 있으나, 간섭하는 태도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적대 요인”이나 “거부 요인”과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B.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먼저, 내적 합치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아버지 양육태도 검사의 하위척도에서는 “온정 요

< 표 5 > 어머니 양육태도 검사의 요인 행렬표 (2 요인)

하위 변인	회 전 전			회 전 후	
	온 정 요 인	거 부·권 위 주 의 요 인	공 유 치	온 정 요 인	거 부·권 위 주 의 요 인
1	.35	-.05	.38	.33	-.01
2	-.04	-.08	.15	.05	.18
3	.19	-.08	.37	.09	-.04
4	.54*	.04	.33	.44*	-.23
5	.58*	.11	.39	.57*	-.14
6	.74*	.07	.61	.73*	-.21
7	.75*	.10	.61	.74*	-.22
8	.73*	.08	.54	.64*	-.32
9	.71*	.13	.53	.62*	-.32
10	.73*	.19	.56	.69*	-.23
11	.75*	.16	.61	.75*	-.22
12	.50*	.18	.31	.55*	-.07
13	.32	.37	.27	.46*	.13
14	.57*	.26	.41	.55*	-.19
15	-.28	.52*	.35	-.06	.44*
16	.18	.30	.27	.07	-.14
17	.27	.52*	.34	.40	.14
18	.07	.56*	.43	.09	.09
19	.06	.56*	.32	.19	.25
20	.37	.33	.29	.32	-.12
21	-.10	.60*	.43	.01	.27
22	-.56*	.43*	.59	-.20	.73*
23	-.42*	.55*	.50	-.18	.59*
24	-.59*	.38	.63	-.22	.76*
25	-.55*	.28	.46	-.28	.62*
26	-.70*	.29	.67	-.37	.73*
고 유 치	6.65	2.86			
설명변량 (%)	58.6	25.2			

* 요인 부하량 (factor loading) > .40

〈 표 6 〉 아버지의 양육태도 요인·하위 변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N = 1722

요인 I 하위 변인	은 정 요 인	α	요인 II 하위 변인	거부·권위주의요인	α
	명 칭			명 칭	
5	긍정적인 평가	.88	15	간섭	.84
6	공유 (시간, 활동등의 공유)	.87	22	부정적인 평가	.80
7	애정의 표현	.87	23	신경이 예민해서 화를	
8	자립적 사고의 고무	.87		잘내는 태도 (홍분성)	.81
9	정서적인 지지	.87	24	거부적인 태도	.79
10	평등주의적 대우	.87	25	무관심	.81
11	지적인 자극	.87	26	무시	.80
12	아동 중심적 태도	.88			
13	소유하려는 태도	.89			
14	보호하려는 태도	.88			
M = 85.07		.89	M = 31.44		.84
SD = 13.42			SD = 8.80		

〈 표 7 〉 어머니의 양육태도 요인·하위 변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N = 1722

요인 A 하위 변인	은 정 요 인	α	요인 B 하위 변인	거부·권위주의요인	α
	명 칭			명 칭	
4	사회성의 고무	.89	15	간섭	.85
5	긍정적인 평가	.88	22	부정적인 평가	.80
6	공유 (시간, 활동등의공유)	.87	23	신경이 예민해서 화를	
7	애정의 표현	.87		잘내는 태도 (홍분성)	.82
8	자립적 사고의 고무	.88	24	거부적인 태도	.79
9	정서적인 지지	.88	25	무관심	.82
10	평등주의적 대우	.88	26	무시	.80
11	지적인 자극	.87			
12	아동 중심적 태도	.88			
13	소유하려는 태도	.89			
14	보호하려는 태도	.88			
M = 96.10		.89	M = 31.48		.84
SD = 13.53			SD = 8.87		

인”이 .87~.89, “거부·권위주의 요인”이 .79~.84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어머니 양육태도 검사의 하위척도에서는 .87~.89, .79~.85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검사도구의 문항 선택과정에서 2명의 아동심리 전문가가 참여하여 외관적 타당도 (facial validity)가 높은 문항들을 주로 선택하였고, pearson correlation, 요인 분석 등에 의해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기는 했으나, 유사한 개념에 근거한 타당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준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를 분석하였다. 비교의 기준이 된 검사도구는 정원식(1974)의 「가정환경 진단검사」였으며, 본 연구자는 이중에서 “애정적 태도”와의 상관 관계를 검토했다. 그결과, 부·모의 “온정 요인”과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r = .44, P < .0001$; $r = .36, P < .0001$) “거부·권위주의 요인”과는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r = -.41, P < .0001$; $r = -.34, P < .0001$), 따라서 본 검사도구의 타당도 역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C.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및 관련변인

1.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결과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과 제변인간의 상관 관계를 보면, 가정의 SES 및

이에 포함되는 변인들 (부·모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상관관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상관 관계표를 참고로 부·모의 양육태도 두 요인을 각각 종속 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성, 형제의 수, 부·모의 연령, 가정의 SES, 어머니의 직업유무, 가족 구성, 부·모의 종교 등의 9개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8>에서 보면, 아버지의 “온정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의 SES, 어머니의 직업유무, 부의 종교, 모의 종교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SES가 높을수록 ($\beta = .24$) 및 어머니가 직업이 없을 경우 ($\beta = -.08$), 아버지가 불교일 경우 ($\beta = .06$), 어머니가 천주교일 경우 ($\beta = .05$) 아버지의 온정적 특성이 높게 지각되는 경향이 있었다. 아버지의 “거부·권위주의 요인”에서는 가정의 SES, 어머니의 직업 유무, 아동의 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SES가 낮을수록 ($\beta = -.19$), 어머니의 직업이 있을 경우 ($\beta = .05$) 아동이 남아일 경우 높게 지각되는 경향이 있었다 ($\beta = .07$). 그러나, 가정의 SES를 제외하면,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들의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은 편이었다.

<표 9>에서 보면, 어머니의 “온정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의 SES, 어머니의 종교, 어머니의 직업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SES가 높을수록 ($\beta = .19$) 및 어머니의 종교가 기독교일 경우 ($\beta = .05$), 어머니가 직업이 없을 경우 ($\beta =$

-.05)에 어머니의 온정적 특성은 높게 지각되는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의 거부·권위주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의 SES, 아동의 성 순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의 SES가 낮을수록 ($\beta = -.16$) 및 아동이 남아일때 ($\beta = .13$) 더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 표 8 〉 아버지의 양육태도 요인에 대한 제 변인들의 중다회귀 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온정 요인	거부·권위주의 요인
	B (β)	B (β)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1.18(.24)****	-.60(-.19)****
어머니의 직업유무	-2.30(-.08)***	.92(.05)*
아버지의 종교	1.66(.06)*	
어머니의 종교	2.08(.05)*	
아동의 성		1.30(.07)**
Constant	72.89	36.58
R ²	.08	.05

* P < .05 ** P < .01
 *** P < .001 **** P < .0001

※ 연구모형내의 명목측정 변인들은 가변수화(Dummy 화) 하여 통계에 사용하였음.
 어머니의 직업유무: 유 (1), 무 (0)
 아동의 성: 남 (1), 여 (0)
 아버지의 종교: 불교 (1), 기타 (0)
 어머니의 종교: 천주교 (1), 기타(0)

아버지의 양육태도 요인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가정의 SES로 나타났고, 유의하게 나타난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게 나타났다.

2. 부와 모의 양육태도 유형의 분포

부와 모의 양육태도 유형은 두 요인을 점수 분포에 따라 상·중·하 세 집단으로 각각 분류하여 결합시켜서 추출해 내었다.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상(25%), 중(50%), 하(25%) 세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상·하 두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간결하고 분명한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추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간집단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9개의 양육태도 유형이 추출되었다.

〈 표 9 〉 어머니의 양육태도 요인에 대한 제 변인들의 중다회귀 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온정 요인	거부·권위주의 요인
	B (β)	B (β)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92(.19)****	-.51(-.16)****
어머니의 종교	1.73(.05)*	
어머니의 직업유무	-1.35(-.05)*	
아동의 성		2.37(.13)****
Constant	86.61	35.54
R ²	.04	.04

* P < .05 ** P < .01
 *** P < .001 **** P < .0001

※ 연구 모형내의 명목측정 변인들은 가변수화(Dummy 화) 하여 통계에 사용하였음.
 어머니의 직업유무: 유(1), 무(0)
 아동의 성: 남 (1), 여(0)
 어머니의 종교: 기독교 (1), 기타 (0)

< 표 10 >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N = 1722

유형	결합형태*	부		모	
		N	%	N	%
미분화적 유형	온정 요인(하)+거부·권위주의 요인(하)	25	1.5	29	1.68
거부적·권위주의적유형	온정 요인(하)+거부·권위주의 요인(상)	215	12.5	208	12.08
온정적 유형	온정 요인(상)+거부·권위주의 요인(하)	209	12.1	203	11.79
모순적 유형	온정 요인(상)+거부·권위주의 요인(상)	40	2.3	44	2.56
중도적 유형 I	온정 요인(중)+거부·권위주의 요인(중)	507	29.4	519	30.14
중도적 유형 II	온정 요인(하)+거부·권위주의 요인(중)	175	10.2	166	9.63
중도적 유형 III	온정 요인(중)+거부·권위주의 요인(하)	189	11.0	189	10.98
중도적 유형 IV	온정 요인(중)+거부·권위주의 요인(상)	176	10.3	189	10.45
중도적 유형 V	온정 요인(상)+거부·권위주의 요인(중)	186	10.8	184	10.69

* 온정 요인 : 하(37-76 점), 중(77-94 점), 상(95-114 점)

거부·권위주의 요인 : 하(17-24 점), 중(25-36), 상(37-67 점)

3.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및 관련 변인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은 아버지의 양육태도 9 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9 유형을 각각 결합시켜 81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실제로 빈도가 1개 이상 나타난 유형은 74 유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74 유형중에서 전체의 3.5%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8 유형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 8 유형이 SES에 따라 어떻게 지각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8 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SES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2차원적인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 >. 그결과, 상류 가정에서는 부모의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온정적

유형”(32.1%)을 지각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상류(35.3%) 및 중하류 가정(32.5%)에서는 부모의 “중도적 유형 I”을 지각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으며, 중상류(18.4%) 및 상류 가정(32.1%)이 중하류(7.3%) 및 하류 가정(7.9%)에 비해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은 낮게 나타났다. 하류 가정에서는 부모의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4.9%), “중도적 유형 I”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분포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및 제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의 “온정적 유형”과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성, 형제의 수, 부·모의 연령, 가정의 SES, 가족 구성, 부·모의 종교, 어머니의 직업 유무등의 9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 분석표에서 각 변인의 유의도는 X^2 검증으로 보았고, 관련 정도는 PHI 또는 Cramer's V로 파악하였다.

(1) 가정의 SES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교차 분석 결과

가정의 SES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시한 3차원적인 교차분석 결과, 아동의 성, 어머니의 직업유무, 부·모의 종교 등에 따라서만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연령, 가족 구성, 형제의 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는 중상류 가정에서만 나타났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C's V = .32$).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중하류 가정에서만 유의했는데, 어머니가 직업이 없을 때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PHI = .26$). 아버지의 종교에 따른 차이는 중상류 가정에서만 유의했는데, 천주교일 때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무종교일 때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Cramer's s = .38$). 어머니의 종교에 따른 차이는 중하류 가정에서만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Cramer's V = .40$) (표 12).

(2) 아동의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교차분

석 결과

아동의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시한 3차원적인 교차분석 결과, 남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연령, SES, 가족구성, 부·모의 종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 형제의 수, 부·모의 연령, 가족 구성, 아버지의 종교 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남아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아는 부의 연령이 41-45세일 때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40세 이하 또는 46세 이상일 때 부모의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s V = .34$). 또한 남아는 가정의 SES가 높아질수록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중상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온정적 유형”을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보다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s V = .50$). 남아는 핵가족보다 대가족일 때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PHI = .23$), 부·모의 종교가 천주교·기독교일 때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불교 및 무종교일 때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C's V = .34$; $C's V = .35$) < 표 13 >.

여아에 있어서, 가정의 SES가 높아질수록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남아의 경우와 일치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C's V = .49$). 또한 여아는 어머니가 직업이 없을 때($C's V = .32$), 어머니의 종교가 기독교·천주교일 때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C's V = .33$) < 표 14 >.

< 표 11 >

가정의 SES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8 유형

단위 : 명 (%)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가정의 SES					
	SES	하 류	중하류	중상류		상 류
중도적 유형 I		21 (33.3)	116 (35.3)	109 (35.3)	14 (26.4)	$X^2 = 88.50^{****}$ df = 21 Cramer's V = .19
온정적 유형		5 (7.9)	26 (7.3)	57 (18.4)	17 (32.1)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		22 (34.9)	48 (13.4)	29 (9.4)	0 (.0)	
중도적 유형 III		4 (6.3)	36 (10.1)	26 (8.4)	5 (9.4)	
중도적 유형 IV		0 (0)	42 (11.8)	20 (6.5)	4 (7.5)	
중도적 유형 VI		3 (4.8)	31 (8.7)	22 (7.1)	5 (9.4)	
중도적 유형 II		4 (6.3)	36 (10.1)	18 (5.8)	2 (3.8)	
중도적 유형 V		4 (6.3)	22 (6.2)	28 (9.1)	6 (11.3)	
계 (N = 782)		63 (100.0)	357 (100.0)	309 (100.0)	53 (100.0)	

* P < .05

** P < .01

*** P < .001

**** P < .0001

〈 표 12 〉 가정의 SES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아동의 성, 어머니의 직업유무, 부·모의 종교간의 관계

단위 : 명 (%)

SES 아동의 성		중 상 류		
		남	여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 (N=29)		22 (47.8)	7 (17.5)	$X^2 = 7.50^{**}$
온정적 유형 (N=57)		24 (52.2)	33 (82.5)	df = 1
계 (N=86)		46 (100.0)	40 (100.0)	PHI = .32

SES 아버지의 종교		중 상 류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종교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 (N=29)		4 (23.5)	1 (10.0)	5 (20.8)	19 (54.3)	$X^2 = 12.68^*$
온정적 유형 (N=57)		13 (76.5)	9 (90.0)	19 (79.2)	16 (45.7)	df = 4
계 (N=86)		17 (100.0)	10 (100.0)	24 (100.0)	35 (100.0)	Cramer's V = .38

SES 어머니의 직업유무		중 하 류		
		유	무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 (N=48)		24 (80.0)	24 (54.5)	$X^2 = 4.02^*$
온정적 유형 (N=26)		6 (20.0)	20 (45.5)	df = 1
계 (N=74)		30 (100.0)	44 (100.0)	PHI = .26

SES 어머니의 종교		중 하 류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종교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 (N=48)		6 (40.0)	3 (37.5)	26 (70.3)	13 (92.1)	$X^2 = 12.01^*$
온정적 유형 (N=26)		9 (60.0)	5 (62.5)	11 (29.7)	1 (7.9)	df = 4
계 (N=74)		15 (100.0)	8 (100.0)	37 (100.0)	14 (100.0)	Cramer's V = .40

* P < .05

** P < .01

〈 표 13 〉 남아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아버지의 연령, 가정의 SES, 가족 구성, 부모의 종교간의 관계

단위 : 명 (%)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아동의 성				
	남	아			
아버지의 연령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40세이하	41~45세	46세이상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 (N= 60)	18 (81.8)	24 (44.4)	18 (60.0)	$X^2 = 11.94^{**}$	
온정적 유형 (N= 46)	4 (18.2)	30 (55.6)	12 (40.0)	df = 3	
계 (N=106)	22 (100.0)	54 (100.0)	30 (100.0)	Cramer's V = .34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아동의 성				
	남	아			
SES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하 류	중하류	중상류	상 류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 (N= 60)	12 (92.3)	26 (72.2)	22 (47.8)	0 (.0)	$X^2 = 26.11^{****}$
온정적 유형 (N= 46)	1 (7.7)	10 (27.8)	24 (52.2)	11 (100.0)	df = 3
계 (N=106)	13 (100.0)	36 (100.0)	46 (100.0)	11 (100.0)	Cramer's V = .50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아동의 성				
	남	아			
가족구성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대가족	핵가족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 (N= 60)	10 (38.5)	43 (64.2)	$X^2 = 4.06^*$		
온정적 유형 (N= 46)	16 (61.5)	24 (35.8)	df = 1		
계 (N=106)	26 (100.0)	67 (100.0)	PHI = .23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아동의 성				
	남	아			
아버지의 종교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기독교	천주교	불 교	무종교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 (N= 60)	7 (46.7)	4 (23.5)	25 (69.4)	24 (63.2)	$X^2 = 12.42^*$
온정적 유형 (N= 46)	8 (53.3)	13 (76.5)	11 (30.6)	14 (36.8)	df = 4
계 (N=100)	15 (100.0)	17 (100.0)	36 (100.0)	38 (100.0)	Cramer's V = .34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아동의 성				
	남	아			
어머니의 종교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기독교	천주교	불 교	무종교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 (N= 60)	10 (47.6)	7 (29.2)	32 (71.1)	11 (68.8)	$X^2 = 13.19^*$
온정적 유형 (N= 46)	11 (52.4)	17 (70.8)	13 (28.9)	5 (31.2)	df = 4
계 (N=100)	21 (100.0)	24 (100.0)	45 (100.0)	16 (100.0)	Cramer's V = .35

* P < .05

** P < .01

*** P < .001

**** P < .0001

< 표 14 > 여아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가정의 SES, 어머니의 직업 유무, 어머니의 종교간의 관계

단위 : 명 (%)

이동의 성 SES		여 아				
		하 류	중하류	중상류	상 류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 (N=39)		10 (71.4)	22 (57.9)	7 (17.5)	0 (.0)	X ² = 23.31**** df = 3
온정적 유형 (N=59)		4 (28.6)	16 (42.1)	33 (82.5)	6 (100.0)	
계 (N=98)		14 (100.0)	38 (100.0)	40 (100.0)	6 (100.0)	Cramer's V = .49
이동의 성 어머니의 직업유무		여 아				
		유	무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 (N=39)		19 (63.3)	20 (29.4)	X ² = 8.63** df = 1		
온정적 유형 (N=59)		11 (36.7)	48 (70.6)			
계 (N=98)		30 (100.0)	68 (100.0)	Cramer's V = .32		
이동의 성 어머니의 종교		여 아				
		기독교	천주교	불 교	무종교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 (N=39)		5 (25.0)	2 (18.2)	18 (39.1)	14 (66.7)	X ² = 10.57* df = 4
온정적 유형 (N=59)		15 (75.0)	9 (81.8)	28 (60.9)	7 (33.3)	
계 (N=98)		20 (100.0)	11 (100.0)	46 (100.0)	21 (100.0)	Cramer's V = .33

* P < .05

** P < .01

*** P < .001

**** P < .0001

V. 논의 및 결론

A.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외관적 타당도, 구인 타당도, 기준관련 타당도 방법등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 및 유형에 관련된 변인에 관한 분석에서,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어느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검사도구의 타당도가 재확인 되었다고 보겠다.

2. 검사도구의 하위 변인(Subscales)들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매우 유사한 두 개의 요인이 각각 추출되었다. 이 두 요인은 '온정 요인'과 '거부·권위주의 요인'으로 각각 명명되었고, 독립된 두개의 차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 사회에서 주로 보고된 결과들과 비교해볼때 (Becker, 1964; Schaefer, 1965; Schludermann & Schludermann, 1970; Saavedra, 1980), 자율-통제 차원이 따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과 온정 요인과 거부·권위주의 요인이 각기 다른 두개의 단일차원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나타냈다.

즉,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는 온정과 거부·권위주의 요인이 양극적인 단일차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개

의 차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자립적 사고의 고무, 평등주의적 대우를 해주는 반면에 소유 및 보호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무관심, 무시를 나타내는 반면에 간섭을 하는 이중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김재은(1974), 이원녕(1983) 등의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원녕(1983)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요인 분석에서 '애정적 요인'과 '거부적 요인'을 두개의 분리된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김재은(1974)은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도적 경향 내지 불일치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준다고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중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중도적 유형 I'로 명명되었는데, 중간 정도의 온정요인과 거부·권위주의 요인의 결합에 의해 구성된 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요인 점수에서 빈도 분포를 기준으로 상집단(75-100%), 중집단(25-75%), 하집단(0-25%)으로 각각 분류하여 결합시켰다. '중도적 유형 I'은 중집단간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사례수가 많았고, 따라서 대표적인 양육태도 유형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의 '중도적 유형 I'이라는 양육태도는 아마도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애정적 표현·정서적인 지지·보호 및 소유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녀에 대한 무시, 부정적 평가, 간섭 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민주적, 자립적 사고 방식과 전통적, 권위주의적 사고 방식이 갈등적인 상태에서 공존하고 있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도적 유형 I’이라는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는 상황에 따라 자녀의 행동 영역에 따라 비일관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부모의 양육태도 8가지 유형중 한가지 유형을 제외한 7가지 유형에서 부·모간 양육태도가 일치하는 결과(92.2%)가 나타났다. 부모간 양육태도의 불일치는 아동의 정서적·성격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볼때 (Becker, 1964 ; 전경숙, 1980 ; 오성심, 이종승, 1982),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간 양육태도의 일치 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실제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유사하게 보는 편견이 가능하다는 보고도 나타나서 (Schwarz et al., 1985),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부모 양육태도의 평가자를 복수로 하여 여러 가족 구성원들 (자녀, 부·모)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어나고 있다 (Cox, 1970).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근거로 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Schaefer, 1965; Kagan, 1971),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5.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2% 내외),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중 ‘온정 요인’와 ‘거부·권위주의 요인’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거나 낮은 점수를 얻은 유형이 나타났다.

이 두 요인은 대체로 부정적 상관을 나타

내고 있기 때문에, 두 요인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는 (‘모순적 유형’) 자녀에 대해 애정과 거부라는 양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두 요인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얻은 경우는 (‘미분화 유형’) 자녀에게 애정을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도 거부적이지도 않는 태도로써 일종의 방임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6. 자녀가 지각한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및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들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SES)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남·녀 아동 모두 가정 SES가 높을수록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의 대부분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Rosen, 1964 ; Waters & Crandall, 1964 ; Jones et al., 1980 ; 이홍우, 1973 ; 한종혜, 1980 ; 이원녕, 1983 ; 윤현선, 1984 ; 이은수, 1985).

둘째, 가정의 SES를 통제했을때,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중상류 가정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 및 아버지의 종교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상류 가정에서, 남아보다 여아가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Hoffman과 Saltzstein(196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중상류 가정의 부모는 여아에게는 보다 온정적·보호적으로, 남아에게는 거부적·권위주의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

영해준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종교에 관해 보면, 중상류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종교가 천주교일때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무종교일때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희자·정영숙(197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아버지가 종교가 없을 때보다 천주교·기독교등을 믿을때 자녀에게 더 온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하류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유무, 어머니의 종교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직업이 없을때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때는 부모의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중하류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직업을 갖는 동기가 자아 실현이나 일에 대한 보람을 추구한다기 보다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stress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거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류가정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유형'보다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이 전체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어머니의 종교에 따른 차이를 보면, 어머니가 천주교일때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무종교일때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세제, 아동의 성을 통제했을때, 부모의 양

육태도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남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연령, 가족구성, 부·모의 종교, 가정의 SES 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이 41-45세일때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40세 이하일때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연령이 있다는 견해(Ragozin et al., 1982)를 지지해주는 것이다. 가족 구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자는 대가족일때가 핵가족일때보다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남아 선호 사상이 더 강하게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남자는 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천주교일 때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여아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직업이 없을 때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여아는 일반적으로 남아보다 부모에게 정서적 의존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Maccoby & Jacklin, 1974), 어머니가 직업이 없을 때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이 더 많은 데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적 유형'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무종교일때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B.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결론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은 ‘온정요인’과 ‘거부·권위주의 요인’의 두 요인의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내의 불일치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자율-통제 차원이 따로 분리되어있지 않아서 자녀에게 자립적 사고의 고무, 평등주의적 대우를 해주는 반면에 소유 및 보호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무관심·무시를 나타내는 반면에 간섭을 하는 이중적 구조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 ‘중도적 유형 I’ 역시 온정 요인과 거부·권위주의 요인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부모내의 불일치성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부·모간 양육태도의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8가지 유형중에서 부·모간 양육태도가 일치한 유형은 7가지 유형(92.2%)으로 나타났다.

4.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관한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중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SES)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5개 대도시에서만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위의 결론은

엄격히 말해서 자녀가 지각한 한국 대도시 부모의 양육태도에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부모의 대표적인 양육태도 유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농촌, 어촌 등의 지역까지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여러가지 제한상,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간의 관계만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다른 변인들, 즉 부모의 심리적 특성, 가치관, 결혼 만족도 및 자녀의 능력, 성격, 출생 순위 등의 영향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진다면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보다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 제한점외에도 질문지가 지니는 일반적인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으나, 본 연구는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여기에서 측정된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결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의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아동의 제반 발달특성과의 관계를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경세기획원 조사통계국 (1986). 한국통계연감
- 김재은 (1974). 한국 가족의 심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남상인 (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 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마송희 (1979). 부모의 양육태도와 동료의 유혹에 대한 아동의 저항간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영현 (198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훈육 방법과 자아개념과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말애 · 조복희 (1985).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와 취학전 아동의 지능발달과의 관계. 대한 가정학회지. 23(4). p.200.
- 이수연 (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수 (1985).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녕 (1974). 아동의 사회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방법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1) 329 ~ 344.
- 이원녕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연관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흥우 (1973). 인지훈육적 관점에서 본 육아방식의 상관변인 연구 보고서. 행동과학연구소.
- 이현순 (198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자 · 정영숙 (1979).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관심도와 자녀의 인성과의 상관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17. 83 ~ 105.
- 오기선 (1965). 어버이와 자녀관계검사. K. T. C.
- 오성심 ·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 연구 노트, 11.
- 윤현선 (1984).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진형 (1983). 부모의 양육태도와 3 - 5세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정원식 (1974). 가정환경 진단 검사. K. T. C.
- 전경숙 (1980). 부모간의 양육태도의 일치도와 아동의 성격특성과의 상관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종혜 (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련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0).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 (세계 6개국 아동과 어머니의 의식구조 비교 조사), 1.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한국, 일본, 태국, 미국, 프랑스, 영국 6개국 의식구조 비교 조사), 한국인의 여론시리즈. 2.
- 홍상욱 (198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4). 153 ~ 167.

- Armentrout, J.A., and Burger, G.K. (1972).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t five grade levels. Developmental Psychology, 7, 44-48.
- Baldwin, A.L. (1955). Behavior and development in childhood.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Barduin, C.M., and Henggeler, S.W. (1981). Social class, experimental setting, and task characteristics as determinants of objective child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09-214.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 Becker, W.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In M.L. Hoffman and L.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Y.: Russell Sage Foundation.
- Campbell, S.B. (1973). Mother-child interaction in reflective, impulsive, and hyperactive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8, 341-349.
- Cox, S.H. (1970). Intrafamily comparison of loving-rejecting child-rearing practice. Child Development, 41, 437-448.
- Droppleman, L.F., and Schaefer, E.S. (1963). Boys' and girls' report of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648-654.
- Henggler, S.W. & Tavormina, J.B. (1980). Social class and race differences in family interaction.
- Hoffman, L.W. (1974).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 ; A review of the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0, 204-228.
- Hoffman, M.L. (1960). Power assertion by the parent and its impact on the child. Child Development, 31, 139.
- Hoffman, M.L., and Saltzstein, H.D. (1967). Parent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5-59.
- Jones, D.C., Rickel, A.U. and Smith, R.L. (1980).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and social problem-solving strategies among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241-242.
- Jordan, B.E., Radin, N., and Epstein, A. (1975). Paternal behavior and intellectual functioning in preschool boys and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407-408.
- Kagan, J. (1971). Personality development.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Maccoby, E.E., and Jacklin, C.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Cal.: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rgolin, G., and Patterson, G.R. (1975). Differential consequences provided by mothers and fathers from their sons and daugh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537-538.
- Noller, P. (1980). Cross-gender effect in two child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59-160.
- Pumroy, D.K. (1966). Maryland parent attitude survey : A research instrument with social desirability. Journal of Psychology, 73-78.
- Radin, N. (1973). Observed parental behaviors as antecedents of intellectual functioning in young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8. 349-376.

- Ragozin, A.S., Basham, R.B., Cirnic, K.A., Greenberg, M.T. & Robinson, N.M. (1982) Effects of maternal age on parenting rol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627-634.
- Rohner, R.P. (1980). Worldwide test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An overview.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1-22.
- Rohner, R.P., & Pattengill, S.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osen, B.C. (1964). Social class and the child's perception of the parent. Child Development, 35, 1147-1153.
- Rothbarth, M.K. and Maccoby, E.E. (1966). Parents' differential reactions to sons and daugh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227-243.
- Rowe, D.C. (1981). Environmental and genetic influences on dimensions of perceived parenting: a twin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17(2), 203-208.
- Saavedra, J.M. (1980).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control on the self-evaluation of Puerto-Rican adolescent males.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41-54.
- Sarafino, E.P. and Armstrong, J.W. (1980). Family Influences on Socialization in Childhood-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Scott, Foresman and Company, 303-315.
- Schaefer, E.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aefer, E.S. (1961). Multivariate measurement and factorial structure of children's perceptions of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16, 345-346. (abstract)
- Schaefer, E.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Schaefer, E.S., and Bayley, N. (1960). Consistency of maternal behavior from infancy to pre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 106.
- Schludermann, E., and Schludermann, S. (1970). Replicability of factors in children's report of parent behavior (CRPBI). Journal of Psychology, 76, 239-249.
- Schludermann, S., and Schludermann. (1979). A revised paternal attitude research instrument. (PARI) Q4: methodological study. Journal of Psychology, 96, 15-23.
- Schwarz, J., Barton. H., Marianne, L., and Pruzinsky, T. (1985). Assessing child-rearing behavior: A comparison of ratings made by mother, father, child, and sibling on the CRPBI. Child Development. 56, 462-479.
- Sears, P.S. (1965). Child-rearing factors related to playing of sex-typed roles. N.Y.: Harvard University.
- Stuckey, F., McGhee, P.E. & Bell, N.J.(1982). parent-child interaction; The influence of maternal employ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8, 635-650.
- Symonds, P.M. (1949). The dynamic of parent-Child relations. N.Y.: Columbia University.

Waters, E., and Crandall, V.J. (1964). Social clas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from 1940-1960. Child Development, 35, 1021-1032.

Zuckerman, M., Beatrice, R.B., Monashikin,

I, and Norton, J.A. (1958). Normative data and factor analysis on the parental attitude research instrumen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2, 165-171.

< 부록 >

작성연도별로 본 국내·외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도구

작성년도	연구자	양육태도의 차원 또는 유형	비고
1945	Symonds	지배 - 복종, 거부 - 보호	
1955	Baldwin	민주, 전체, 익애, 거부적 가정분위기	
1957	Sears	애정지향적 훈육, 물질지향적 훈육	
1958	Schaefer & Bell	통제적 - 권위주의적 요인, 적대 - 거부 요인, 민주적 - 평등주의적 요인	「 PARI 」(부모용)
1958	Zuckerman, Beatrice, Monashikin & Norton	권위주위적 통제, 적대·거부, 민주적 태도	Schaefer 의 「 PARI 」를 표준적 대상에게 다시 실시하여 요인분석 (부모용)
1959	Schaefer	거부 - 수용, 통제 - 허용 두차원에서 수용과 통제, 수용과 허용, 거부와 통제 거부와 허용의 4 유형을 제시	「 MBRI 」(어머니용)
1961	Cox & Leaper	애정, 제한, 가족결속력의 3 차원을 제시	
1963	Roe & Siegelman	애정 - 거부, 방임 - 요구, 관심의 3 차원	「 PCRQ 」(부모용)
1964	Becker	적대심 - 온정, 제한 - 허용, 과보호 - 방임의 3 개 차원의 조합에서 8 유형의 양육태도를 제시	민주적, 관용적, 신경과민적, 무관심, 권위주의, 엄격한 통제, 과보호, 조직적 효율성 (8 유형)
1964	Rosen	부모의 능력, 부모의 안정성, 부모의 수용성과 지지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아동용)
1965	Schaefer	애정 - 거부, 자율 - 통제	「 CRPBI 」(아동용)
1965	Block	양육성과 제한성	CRPR (어머니용)
1965	오기선	거부, 지배, 보호, 복종, 모순 불일치	아버이와 자녀관계 진단검사 (부모용, 자녀용의 두종류)
1966	Pumroy	규율적, 과허용적, 과보호적, 거부적 태도	「 MPAS 」
1970	Hoffman	권력단언, 애정의 철회, 귀납	
1970	Schludermann & Schludermann	애정 - 거부, 자율 - 통제	Schaefer 의 「 CRPBI 」(1965)를 제작 (아동용)
1971	Dielman, Carolyn & Patrick	어머니 8 요인, 아버지 7 요인	Sears 의 도구를 수정, 제작

작성년도	연구자	양육태도의 차원 또는 유형	비고
1973	Baumrind	통제, 성숙에의 요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명확성, 부모의 양육성동의 4 측면에서 권위적통제, 엄격한태도, 허용적태도로 분류	관찰, 가정방문, interview 등을 통해 평가
1973	이홍우	규제원리, 합리적지향, 호기심훈련	인지훈육적 관점(부모용)
1974	김재은	화목-불화, 허용-엄격, 친애-소원	Fels 연구소의 「PBR」를 모체로 하여 부부관계 1 영역을 보완-「가정환경 진단검사」
1974	이운영, 차재호	온정-냉정, 과보호-방임, 허용-제약, 안달-태평의 4 차원	
1974	정원식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	
1975	Burger	수용-거부, 심리적자율성-심리적통제 엄격-느슨한 통제	「CRPBI」(1965)을 다시요인 분석
1976	Kelly & Worell	온정적 태도, 인지적 자극	「PBF」(아동용)을 사용
1979	Dielman & Barton	어머니의 양육태도 15개요인, 아버지 양육태도 11개 요인을 제시	「CRPQ」(아동용)
1980	Saavedra	거부적통제, 극단적인 자율, 죄책감을 이용한 통제, 통제의 4 유형	「PARQ」, 「PEDI」, 「CRPBI」에서 문항을 추출
1980	박태옥	기대적, 보호적, 정서적, 지시적의 4 차원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어머니용) 경북대학교 교육심리학 연구실
1982	오성심, 이종승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 차원	Schacfer의 「PARI」, 장원식의 「가정환경진단검사」, Hebb와 Bernstein의 도구등을 참고
1983	이원녕	애정(적의), 거부(수용), 어머니의 외향적 특성(내향적특성), 의존성조장(독립성조장), 통제(자율), 긍정적평가(부정적평가), 독립심(의존심)	「MBRI」를 번안, 수정
1985	안말애, 조복희	권위적인 양육태도	「AFI」(Ernhart & Leovinger)를 번안